



KIA 윤석민이 15일 함평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t와의 퓨처스 경기에 선발로 등판해 공을 던지고 있다. 윤석민은 첫 실전 등판에서 5.2이닝 2피안타 6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어서와 윤석민

## 실전은 오랜만이지?

### kt 위즈와 퓨처스 경기 선발 등판 ... 5.2이닝 2피안타 6탈삼진 1실점 '복귀 스타트'

직구 141km·슬라이더 135km  
스피드 떨어져도 공 움직임 좋아  
"컨디션은 괜찮다"

1군 복귀해 결과로 보여주겠다"

KIA 타이거즈 윤석민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KIA 윤석민은 14일 함평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퓨처스 경기에 선발로 등판해 복귀를 위한 스타트를 끊었다. 앞서 3차례 3군 연습경기에서 나와 워밍업을 했던 윤석민은 이날 첫 정식 경기에서 5.2이닝 2피안타 6탈삼진 1실점의 호투를 했다. 직구 최고 스피드는 141km, 슬라이더는 135km. 스피드는 부족했지만 공의 움직임은 좋았다. 변화구로 방향이 유인하면서 6개의 삼진 중 5개를 헛스윙 삼진으로 장식했다. 1회부터 삼자범퇴로 순조롭게 첫 실전

이 시작했다. 윤석민은 첫타자 홍현빈을 중견수 플라이로 잡아낸 뒤 양승혁을 2루수 땅볼로 처리했다. 하준호의 타구는 우격수 앞으로 향하면서 공 9개로 1회를 끝냈다. 2회에는 김동욱과 남태혁을 각각 유격수 땅볼과 2루수 땅볼로 돌려세웠고, 김종성의 타구는 직접 잡아 1루로 송구했다. 3회 첫 타자 김병희를 1루수 실책으로 내보낸 윤석민은 이준수를 상대로 5-4-3으로 이어지는 병살타를 유도했다. 이창엽과의 승부에서는 투 스트라이크에서 바깥쪽 쪽 잔 직구를 던져, 첫 탈삼진을 뽑아냈다. 헛스윙 삼진으로 시작한 4회, 양승혁의 땅볼 타구를 유격수가 더듬는 사이 타자 주자가 먼저 1루를 밟아 윤석민의 첫 피안타가 기록됐다. 하준호의 우전안타가 이어지면서 1사 1·3루. 윤석민은 김동욱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내줬지만 남태혁을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하고 이닝을 종료했다. 이어진 공격에서 KIA가 승부를 뒤집는데 성공했다. 상대 실책을 더해 잡은 1사

만루 상황에서 이인행의 2타점 적시타와 최승주의 2타점 3루타가 나오면서 5-1이었다. 리드를 잡은 5회 윤석민의 변화구가 위력을 발휘했다. 김종성과 이준수의 방망이를 체인지업으로 유인해 연속 삼진을 기록한 윤석민은 이창엽을 유격수 땅볼로 처리하면서 60개의 공으로 5회를 마감했다. 덕분에 70개의 투구수를 목표로 했던 윤석민이 6회에도 마운드에 올랐다. 풀카운트 승부 끝에 이창엽을 좌익수 플라이로 처리한 윤석민은 홍현빈에게 6번째 탈삼진을 뽑으며, 72구를 끝으로 첫 등판을 마감했다. 윤석민은 "힘들다"며 실전 소감을 밝혔지만 표정은 밝았다. 무엇보다 이번 등판에서 가장 관건이 됐던 '통증'이 없다는 부분이 만족스럽다. 윤석민은 "3군 연습경기부터 오늘까지 투구하는데 어깨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 몸 상태나 경기 감각은 정해진 페이스대로 잘 올라오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첫 등판이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윤석민은 '말보다는 행동'을 강조하면서 조용하고 완벽하게 복귀를 준비하겠다는 각오다. "지금은 말보다는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 1군에 복귀해서 보여드리는 게 먼저다"고 말을 아낀 윤석민은 "컨디션은 괜찮다. 다음 등판 준비 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민은 오는 22일 한화와의 원정경기에서 두 번째 등판을 소화할 예정이다. 유동훈 투수 코치는 "스피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직 팔 스로잉이 완벽하지 않는데 점점 좋아지고 있다. 조금씩 스피드도 더 나올 것이다. 지금은 준비해가는 과정이다"며 "워낙 밸런스가 좋은 선수라서 큰 걱정은 없다. 앞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서 가는 게 맞고 계획대로 잘 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팀은 6-2로 앞선 9회초 대거 5실점을 한 뒤 9회말 타진 전은석의 솔로포로 7-7로 비겼다. /함평=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LA 다저스, 60년만에 최악의 부진

WS 우승 확률 1위 팀에서 PS 출전도 어려운 처지로

60년 만에 최악의 부진에 빠진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월드시리즈(WS) 우승 확률 1위 팀에서 이제는 포스트시즌(PS) 출전도 어려운 처지로 급전직하했다. CBS 스포츠는 팀마다 메이저리그 정규리그의 1/4을 치른 15일(한국시간) 현재 성적으로 올해 포스트시즌에 출전할만한 양대리그 10개 팀을 소개했다. 자체 예측 시스템으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전날까지 40경기에서 16승 24패에 그친 다저스는 올 시즌 84승 78패를 거두는데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 부상 선수들의 합류 후 승률 5할 이상을 올릴 것으로 보이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를 에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92승 70패)에 내주고 지구 연속 우승을 '5'에서 중단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아울러 와일드카드에서 애틀랜타 브레

이브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밀려 포스트시즌에도 오르지 못할 것으로 봤다. 다저스의 포스트시즌 출전 확률은 22%에 불과했다. 이는 시즌 전 CBS 스포츠의 예측과 완전히 동떨어진 결과다. CBS 스포츠는 다저스가 100승 62패를 거둬 6년 연속 지구 우승 타이틀을 가져가고 35.33%의 가장 높은 확률로 2년 연속 내셔널리그를 제패할 것으로 평가했다. 또 다저스의 우승 확률을 전체 1위인 23.38%로 예측했다. 하지만 40경기를 치른 후 다저스의 리그 우승, 월드시리즈 우승 확률은 각각 4.42%, 2.35%로 푹 떨어졌다. 현재 성적을 활용한 컴퓨터 예측이므로 큰 의미 없는 전망이다. 그런데도 선발, 볼펜, 타선 모두 총체적 난국에 빠진 다저스가 우승 후보의 위상을 되찾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연합뉴스

### '거미손' 부폰 장갑 벗는다

23시즌 프로선수 생활 은퇴

'거미손' 잔루이지 부폰(40·이탈리아·사진)이 23시즌 동안 이어온 프로선수 생활을 끝내는 은퇴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AP통신은 15일 "이탈리아 축구대표팀과 유벤투스의 주장인 부폰이 현지시간으로 17일 기자회견에 나선다"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현역 은퇴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유벤투스 구단은 16일 유벤투스의 홈구장인 이탈리아 토리노의 알리안츠 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부폰의 소속팀인 유벤투스는 지난 14일 치러진 AS로마와 2017-2018 세리에A 37라운드 원정에서 0-0으로 비기면서 승점 92를 기록, 우승을 확정했다. 유벤투스는 오는 19일 이승우의 소속팀인 엘라스 베로나와 정규리그 최종전을 치르는데 이 경기까지 부폰이 유벤투스 유니폼



을 입고 마지막으로 치르는 고별전이 될 전망이다. 부폰은 지난해 11월 14일 이탈리아가 스웨덴과의 러시아 월드컵 유럽 플레이오프에서 1부 1패로 패해 월드컵 진출권을 놓치자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 손흥민, 유럽 5대 리그 베스트 플레이어 97위

메시 1위·호날두 16위

한국 축구대표팀의 공격수 손흥민(토트넘·사진)이 국제스포츠연구센터(CIES)가 선정한 '유럽 5대 리그 베스트 플레이어 100명'에 포함됐다. CIES 축구연구소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7-2018시즌 '유럽 5대 리그 베스트 플레이어 100명'을 발표하면서 손흥민을 97위에 올렸다. 손흥민은 100명의 '베스트 플레이어' 가운데 84.08점을 얻어 아뎀 라이치(토리노)와 함께 공동 97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선수로는 손흥민이 유일하다. 이번 순위는 CIES 축구연구소가 이번 시즌 유럽 5대 리그에서 이번 시즌 1800분 이상 출전(독일 분데스리가 1440분)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점수를 매겼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18골(정규리그 12골)에 11도움(정규리그 6도움)을 펼치면서 공격 포인트 29개를 작성했고, 프리미어리그에서 12골로 공동 10위에 이름을 올리는 등 맹활약했다.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92.12점으로 1위에 오른 가운데 다비드 실바(맨



체스터 시티·91.69점), 파울로 디발라(유벤투스·91.37점), 세르히오 아궤로(맨체스터 시티·90.48점)가 뒤를 이었다. 메시의 '라이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88.58점)는 공동 16위로 밀렸다. 또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는 부상 여파로 출전 시간(1797분)이 부족해 명단에서 빠졌다. 한편, 이번 100명의 베스트 플레이어 명단에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소속 선수가 가장 많은 30명이나 포함됐다. 독일 '명가' 바이에른 뮌헨은 11명의 선수를 배출했다. /연합뉴스



### 기성용 "5시즌 땀 스완지와 작별 마음 무겁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캡틴' 기성용(29·사진)이 소속팀인 스완지시티와 결별을 확정했다. 스완지시티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기성용이 감사의 말을 남겼다'라는 제목으로 계약이 끝난 기성용이 팀을 떠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구단은 "기성용은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자유계약(F.A) 신분으로 팀을 떠나게 됐다"며 "기성용은 무거운 마음으로 스완지시티와 작별한다는 말을 남겼다"고 전했다. 기성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5시즌 동안 땀을 스완지시티를 떠나는 것은 힘든 결정이었다"며 "나의 선수 경력에서 가장 오래 땀을 흘린 팀인 만큼 스완지시티는 내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미리 작별인사를 남겼던 기성용은 "스

완지시티에서 즐겁게 지냈고 모든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완지시티는 나에게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땀 기회뿐만 아니라 많은 좋은 기억도 남기게 해줬다"며 "팀이 2부리그로 강등되면서 떠나게 된 게 슬프다. 나의 책임과 있음을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기성용은 "2013년 2월 브래드퍼드시티를 꺾고 캐피털원컵 결승에서 우승한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다시 캐리 톱크 감독과 함께 정규리그에서도 8위를 차지했던 좋은 추억이 있다"고 돌아봤다. 이어 "지난 1월부터 다른 팀과 계약할 수도 있었지만 팀이 반드시 1부리그에 남을 것으로 생각했고, 이번 시즌이 끝나면 계약 연장 협상을 하고 싶었다"며 "한국 팀이 강등하면서 다음 행선지를 생각해야만 했다"고 아쉬워했다. /연합뉴스

### 이승우 "단 1분이라도 모든 것 걸고 뛰겠다"

첫 월드컵 대표팀 발탁 각오

2018 러시아월드컵을 준비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소집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승우(20·엘라스 베로나·사진)가 생애 첫 성인 대표팀 발탁의 감격과 함께 월드컵을 앞둔 결연한 각오를 다졌다. 이승우는 14일 신태용 감독이 발표한 대표팀 소집 선수 28명에 포함됐다. 한 번도 A대표팀에서 땀 적지 않은 만큼 이승우의 차출은 과격적이다. 이승우는 이를 의식한 듯 측근을 통해 대표팀 막내로서 특별한 소감을 전했다. 그는 "말로 표현하기 쉽지 않을 만큼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라면서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대표팀에 들어갈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하다.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들만 모여있는 곳인 만큼 형들에게 많이 배우고 발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팀에 임하는 자세도 각별하다. "주어진 시간 동안 경쟁한다는 생각보다는 팀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는 "1분이라도 기회가 주



어진다면 모든 것을 걸고 뛰겠다"며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대보다는 주어진 자리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매 경기를 뛰었고, 이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어떤 역할이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잘 준비해서 감독님이 추구하는 플레이와 역할을 잘 다듬어서 팀에 빨리 녹아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